

대림 제2주일

기도서 211 면 (A해)

제1독서 : 이 사 11, 1-10

제2독서 : 로 마 15, 4-9

복 음 : 마 태 3, 1-1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홍보	국
인쇄	판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당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인간과 공동체

인권 주일을 맞으며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개개인의 삶은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의롭고 인간적인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보존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교회 메시지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인간은 지상의 재화를 혼자 독점하지 말고 관대하게 나누어 찾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배웠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두 가지 기본원칙에 기초를 둡니다. 첫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을 때 또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거나 봉사받지 못할 때,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때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느님에게 깊은 개인적 투신을 하지 않을 때 완성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초월적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생활을 꼭 필요로 하므로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어야 합니다." (사목 25) 한편 인간의 운명은 현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선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 살면서 자기의 영원한 소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목 76).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공동체인 정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인간은 초월적 목표를 갖습니다.

인간에게는 초현세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한 사회의 선의에 종속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합니다. "물론 육체적 능력이 다르고 지성적 내지 윤리적 역량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한 모든 차별대우는 모두 다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목 29). "만인은 이성(理性)을 지닌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기원을 가졌으며, 그리스도께 구원된다는 같은 목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사목 29).

불의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나 죄악이 사회에 저지른 불의한 태도와 구조 때문에 생활에 상처받는 사람도 초월적 가치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고, 그들에게 현실적이고 능동적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주어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책임을 받아들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제적이고 사회적인 결과를 경시하는 것은 복음의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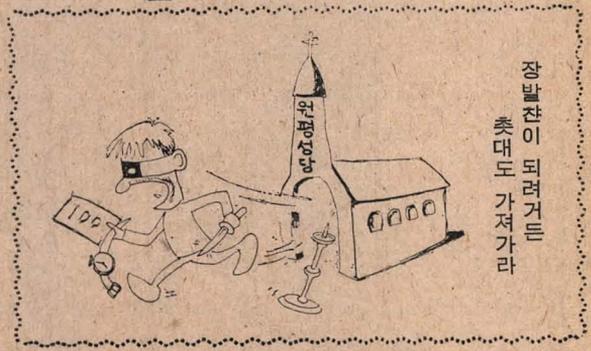
교황 성하 방한 3제

1.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황 성하의 한국 방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어 참으로 기쁘다. 거기다가 우리의 소망대로 한국에서 시성식이 거행된다니 더욱 영광스럽고 즐겁다. 이는 실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흔히 이런 경우를 일러 국위선양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해 본다.

2. 정부는 어려운 우리의 처지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알뜰 살림을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빚지고는 못사는 법이니, 아끼고 또 아껴서 외채의 부담을 줄이는 일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동결 살림에 형평의 원칙이 깨지고 있어서 문제다. 그 하나가 체육 예산으로, 다른 항목은 다 동결해도, 거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니 쉽게 알아 들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공화국이 아닐진대, 이 점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도 좋지만 힘에 겨운 일은 지양하자는 말이다. 많은 선의의 시민들이 교황 성하의 방한을 우리의 국위선양이라고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동결아닌 특별 배려 예산집행으로 국위선양을 노래하니 마음이 개운치 못하다.

3.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기쁨에 들뜬 이때 우리 전주교구민은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다. 순교 성지라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인데도 교황께서 거르고 지나가신다니 섭섭하다. 또 하나는, 유 요한과 이 누갈다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순교 선조들이 아직도 그냥 순교 선조들로 머물러야 함이 부끄럽다. 이러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한 소치라 여겨져 더욱 가슴이 아프다. 이제 교구 설정 50주년을 목표로 이러한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자.

숲 정 이 산 책



결 의 문

종 고(終苦)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생산의 주체요,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우리 농민에게 이제 남은 것은 농약공해에 썩은 몸과 죽어가는 땅 그리고 산처럼 늘어난 빗더미와 서러움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농산물 도입과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시달리면서도 복합영농, 증산구호에 기대를 걸고 피땀흘려 일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하곡, 추곡수매가 동결조치로 우리 농민들은 이제 절박한 생존의 어려움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더구나 국내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장 영자 사건, 삼보증권, 명성그룹, 영동개발 사건 등 사상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잇달아 터져 그 최종적 피해를 농민,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시키면서도 농민이 쌀농사에서 46.1%의 폭리를 얻는다고 생산비를 발표한 농수산부 장관의 망언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민족의 젖줄인 농업의 튼튼한 발전으로 농민이 생산자로서의 높은 긍지를 가질 때 국민경제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행되어온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수출입국형 공업화정책으로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농민은 적자영농에 빚만 늘어나고 있다.

외국농산물의 마구잡이 도입정책과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국내 농업생산 기반은 파괴되고 국내 식량자급도는 50%로 떨어져 오늘날 농민들은 수천 명씩 고향을 떠나고 있다. 마땅히 농민이 가져야 할 땅은 비생산적 투기자본에 잠식되어 전농민의 46%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까지 허용함으로써 농민의 토지상실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농민의 고통을 덜고 권익을 옹호해야 할 농협, 농개조 등 농민관계 조합마저 조합장 임명제로 대표되는 관계조합의 속성을 못갠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농민의 열화같은 동참 아래 추진했던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 100만 서명운동에 대해 당국과 농협은 이 나라 농민운동사에 길이 남을 비열한 방해와 탄압으로 응수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피폐한 농업과 빗더미에 눌린 농가경제를 일으켜 세워 농민의 인간적 존엄을 되찾음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식량자급과 자립경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이의 관철을 위해 1,000만 농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1. 정부는 국민경제의 자립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국농산물 도입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쌀수매가 동결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모든 농민과

돌이 호수에 던져지면
잔잔하던 호수는
파장을 일으키며
반항한다.

이렇듯 생은 고난이기에
삶의 시작은
아기의 울음이런가!

돌이 호수에 던져지면
돌은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는 채
물 속에 잠기듯
우리네 생은
세속에 던져져야 하는
돌이런가?

바람에 나부끼는 잎새처럼
세파에 시달리다가
단풍 들고 나면
싸늘함에 떨어져야만 하는 낙엽이런가?

낙엽이 떨어져 거름이 되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통은
영생애의 효시(嚆矢)이런가?

- 국민을 기만한 박 종문 농수산부 장관은 물러가라.
1. 비농민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농민에게 되돌려라.
 1. 농협, 농개조 등 농민관계조합의 임시조치법을 즉각 폐지하고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 100만 서명운동을 탄압한 원흉을 색출, 처벌하라.
 1. 농민희생 경제정책의 산물인 농가부채를 전면 탕감하라.
 1. 불공평한 농지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고, 비료 등 각종 영농 자재값을 대폭 인하하라.
 1. 이 나라 농업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5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완전히 수정하라.

1983. 11. 16.

한국 가톨릭 농민회

'83 전국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전 일 관 광

☎ 6-6666~8

<정성과 봉사>
금 은, 보석, 시계
금 진 당
 전주백화점 1층 52호
 ☎ 5506
 정 논 지 노

삼 덕 상 회
 전주 남부시장 G동75호
 주 : 은 요 한
 최 아 베 스
 주단, 포묵, 이불, 목화솜
 전화 : 2-4344·6-5356

맨하탄 Y셔어츠
 존렌리 남성 캐주얼
 (조끼·바지·잠바·T셔어츠)
코 아 백 화 점
 1층 12호
 전 속자(마리·모니카)

□ 200주년 기념품 전시 판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고 교황 성하 방한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품들이 전주 교구에서 전시 판매된다. 판매에 나오는 상품들은 서울 해외기획에서 제작하여 주교단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게 되는데, 그 품목들을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계, 의류, 신발류, 가방류 등이고, 장식용으로 자기류, 주물류와 각종 성물 등 100여종의 물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200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각 가정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구입한다면 매우 의미 깊은 일이 될 것이고, 일정 금액의 이득금이 교구 200주년에 헌납되기 때문에 겸하여 교구 200주년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시 판매 일시: 12월 13일부터-18일까지 오전 10시~밤 9시-전주 가톨릭 센터
18일 오전 9시~밤 9시-①군산지구:둔율동 성당
②이리지구:창인동 성당

□ 200주년 기념 및 영등동 새성당 준공 경축 음악회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주교구에서는 제 1차로 건립되는 이리 제 3성당(영등동 새성당) 준공을 경축하는 기념 음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하였다. 이리 창인동 성당 성가대의 발표와 함께 특별히 성악가 몇 분을 초대하여 열리게 될 이 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합창: 이리 창인동 성당 성가대 지휘: 김순모 선생 반주: 황소영
특별출연: 소프라노-박말순 교수, 바리톤-이근화 교수, 피아노-김화자 교수
일시: 1983년 12월 10일(토) 오후 7시 장소: 이리 시민 문화관

□ 주교님 해외 출장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께서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석차 12월 2일 출국하셨다. 주교회의는 마카오에서 열리며 회의가 끝나는데로 주교님께서서는 12월 14일 귀국하실 예정이다. 주교님의 건강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중에 기억해야 되겠다.

감사의 말씀

저의 사제 서품 25주년(은경축)을 축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83. 11. 30
전주 교구장 박정일 주교

□ 새 영화 안내

성인용: 이웃(착한 사마리아인) 천연색 30분 대여비-1만원
잔치(돌아온 탕자) 천연색 30분 대여비-1만원
아동용: 임금님의 별(만화) 천연색 20분 대여비-1만원
내 친구 예수님(만화) 천연색 20분 대여비-8천원
할아버지 이야기 천연색 10분 대여비 5천원
놀라운 세계(만화) 천연색 10분 대여비-5천원
십계명(만화) 천연색 10분 대여비-3천원
우도(만화) 천연색 30분 대여비-1만원
상영료는 필름 대여비에 출장비와 교통비로 1만원이 추가됩니다.
이 필름들은 성바오로 시청각 교리교재 연구소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상영기간(12월~1월 사이) 12월 24일~25일은 상영하지 않습니다.

요심이(539) 김병오

로마교황청 입니까?
교황님의 내년방한은
정부의 초청으로
오십니까?...


한국주교단의
초청으로 오시는
겁니까?


잘알겠습니다.


당신들!
남의집떡으로
잔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 등)
친절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광 약국

구시장 오거리 ①1800
이루도비포(원식)
최테레사(순정)

동복·유아복 아동복 전문

왕자 아동복

아카데미백화점 B-27호
☎ ② 8037
안경레(마리아)

한국제과

선물용 케익, 빵 다과류
일절
☎ ② 6589 ② 2176
유영문(가에따노)
김민주(가타리나)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4
(자동차 보험회사 앞)

금·은·보석·고급시계
(반지계·결혼예물 상담)

명금당

대표 임선희(요한)
군산 ☎ ② 8113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②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미용과·양재과·한복과
수시모집, 최고의 시설,
기숙사 완비,
일류강사진 책임지도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학원
전주시 고사동(적십자사 앞)
☎ ② 4835·② 9826
원장: 김베드로(정두)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6차 소년 꾸리아 회의: 4일 오후 2시, 장소-이리 주현동 성당(구시장 앞에서 하차), 대상-각Pr 구분
2. 월요성서: 매 월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3. 12월 균중후원회 미사: 5일 저녁 7시 센터 성당(주베-김 성진 신부)
4. 중·고생 지도자 연수: 10일 오후 4시30분(접수)~11일,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6천원, 준비물-성서
5. 사목방문: 5일-화산, 12일-교구청(오후 2시), 해바라기 농장
6. 성령해신 봉사자 모임: 12월 8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7. 스포트라 송 광선 성탄 성가의 밤: 9일~10일 오후 7시, 중앙성당, 입장료-성인(4천원), 학생(2천원)
에매치-중앙성당(01711), 성바오로서원(03398), 문화양행(03170), 가나약국(05652), 서울주단(0453), 그린에이지(04477), 맥그리거(04451), 미영사(03651), 스타사장(06094)

(중앙)

수업 신부 윤 정 순
보좌 신부 안 일 훈
사도 회장 김 인 립
전화 01711~3

1. 스포트라 송 광선 성탄 성가의 밤: 12월 9일~10일
시간-오후 7시, 성인-4천원, 학생-2천원
에매치: 중앙성당(01711), 그린에이지(04477), 미영사(03651), 스타사장(06094), 문화양행(03170), 가나약국(05652), 성바오로서원(03398), 서울주단(0453), 맥그리거(04451)
2. 성탄 판공일정: 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12월 13일-1·2·3·4·5·6·23·24·25·26·27반(교사, 경원, 중노, 금안) 14일-7·8·9·10·11·31반(태평) 15일-12·13·14·15·16·17·18·32·33반(서노, 진복) 16일-19·20·21·22·28·29반(인후) 17일-학생·기타
3. 고등학생 상임위원회: 12월 4일 고등학생 교리후
4. 벽돌봉헌: 308장, 감사합니다
5. 사도회 임원개편: 교문-이부석·강재희·이상범·김정기(경원), 회장-김인립, 부회장-김정생·인길석, 선교부장-이종출, 전례부장-임주백, 봉사부장-김완준, 교육-홍보부장-박영근, 재경부장-오중원, 감사-황의욱·소홍영
6. 주일학교 자모회: 12월 6일 오후 3시, 지참물-성서
□ 지난주 봉헌금: 768, 181원 교무금: 1,299, 000원
금안동: 79, 535원 상량식 특별헌금: 방춘원-1만원
성바오로서원-3만, 박혜려나-5천, 김말선-5천

(노송동)

수업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이 홀 재
신부 0969
수사 07032

1. 사도회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대상-각 구역장·봉사위원·공소회장·사도회교문, 빠짐없이 참석
2. 4지구 학생 성가대회에 분당 학생회 최우수상 획득
3. 연도대회 입상표 발표: 1등-인후9구역, 2등-중거역의 모후Pr, 3등-사도의 모후Pr, 4등-바다의 별Pr, 5등-치명자의 모후Pr
4. 분당 돌드레아: 오늘 저녁 8시, 푸르실리스타 참석
5.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공소회장 및 봉사위원 임명: 황우리회장-양철환·부회장-유원희, 양정리회장-안병두·부회장-강홍욱, 나리리회장-강문수·부회장-김순남, 신교리-유영수, 위 지역의 봉사위원-유완순(요양)
7. 추계 판공준비: ①호주는 수업신부와 면담 ②교리시원담당자 ③금년도 교무금환납 ④84년도 교무금신입
공소 판공일정-12월 오전 10시-신원리·오후 3시-왕정리, 13일 오전 10시-황우리·오후 3시-다리리, 14일 오전 10시-금상리·오후 3시-신교리
8. 새성전 건립위한 기도 시작: 각 미사후, 제회합후, 저녁기도 후, 하루에 1번씩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신부(3)2182 수업 신부 김 봉 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 양 협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성심부녀회 월례회의: 7일 오전 10시
까리마스 자모회 월례회: 6일 오후 2시
2. 금주 판공일정: 5일~9일-덕진10반~18반
차주 판공일정: 12일~16일-송천동, 팔복동
저녁에 못나오시는 분 6일~9일 오전 10시·오후 2시
3. 병자성사 및 봉성체: 13일~15일 오후 2시~4시
4. 오늘 모임: 사도회 분과위원회(공식미사 후 교육관)
5. 200주년 사업을 위한 봉헌금 청약서 배부: 한세대로 빠짐없이 청약 협조합니다
6. 차주모임: L.M. 꾸리아 회의(교육관에서)
- 지난주 봉헌금: 441,760원 교무금: 1,152,000원

(복자)

전화 05238원 수업 신부 권 영 균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임원개편: 회장-김성원, 부회장-양규철·

2. 김인식, 감사-박상기·이상인(수고하시겠습니다)
2. 꾸리아 회합: 다음주 오후 2시
3. 복자부녀회, 빈센시오회: 5일, 어머니미사 후
4.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병자봉성체: 12월 10일, 병자 계신가정 분당에 연락
6. 슬라이드 상영: 12월 11일 주일 저녁 8시
내용-①이스라엘, ②파티마 성모 ③에집트 까타콤바
7. 교무금(봉헌금) 완납바람: 완납하시고 판공성사에...
8. 수녀원 헌금: 박정자(3만원), 고인순(1만원)
누계-6,695,800원
9.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양규철 ②박상기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성원 ②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486,870원

(서학동)

전화 02276원 수업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판공성사: 15일-동서학동(1~5반), 16일-서서학동(6~10반), 17일-평화동·서서학동 일부(11~13반·기타반) ※성사시간-매일 오후 3시~6시까지·저녁 7시30분~8시30분까지(공직자)
2. 성탄영제사 교리: 12~17일(저녁 7시30분~8시30분)
3. 사도회 월례회: 7일 저녁 7시30분 예산현성·사목계획
4. 자모회 월례회: 6일 오전 10시30분
5. 반장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꾸리아 모임: 다음주 오후 2시
7. 전례담당: 독서-①박장춘 ②김배근
□ 지난주 봉헌금: 242,990원 교무금: 339,000원

(윤정이)

전화 07366 수업 신부 김 종 길
수·유·09567 사도 회장 김 수 갑

1. 사도회·구역정·부회장 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평신도강민-김정주(오늘)
3. 판공일정: 시간-오후 2시~오후 6시, 14일-서신1-2·3구역·어은골, 15일-서신4·5구역·금안1·2구역, 16일-진복1동·진복2동1·2·3구역, 17일-중·고등학생, 18일-국민학생·직장인은 저녁미사 후
4. 잘고는 필기시험으로 대신합니다
5.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①이원길 ②선종현
기도-김규철·강 삼
□ 지난주 봉헌금: 180,415원 교무금: 569,000원
200주년 헌금: 116,930원

(전동)

신부 06208 수업 신부 김 병 업
전화 사무 03222 보좌 신부 박 찬 길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 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5. 판공일정: 21일~24일
6. 기증: 성당 감실보 및 마펫, 천사의 집(웨딩드레스)
7.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김동원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백종훈 ②김병오
저녁미사: 해설-김희진, 독서-①최종만 ②이 훈
□ 지난주 봉헌금: 717,230원 교무금: 672,000원

(파티마)

신부 0915 수업 신부 김 영 일
수녀 04804 사도회장 황 희 상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오늘밤 미사후, 임원 전원 참석 바람
3. 7일 돌꼭지공소 있습니다: 아침미사 없음
4. 분당 판공: 다음주. 성사표를 사무실에서 미리 찾아
가십시오. 고백성서자 성사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5. 미납교무금 완납하시고, 84년도 예산 확정: 자자는
하느님 앞에 양심적으로 반성합니다
7. 축하합니다: 중·고학생대회에서 우리 분당 응원 1등
□ 지난주 봉헌금: 287,940원 교무금: 441,000원